

'이웃애(愛) 돌봄단' 효과 특특

익산형 복지 시스템, 4월까지 현장서 약 550건 복지 서비스 연계... 사각지대 해소

익산형 복지 시스템의 일환인 이웃애(愛) 돌봄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 주민들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돌봄단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지원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돌봄단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적급여 신청이나 주거지원, 노인돌봄서비스나 농촌간 등 현장에서 약 550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응포면 돌봄단은 고령의 어르신에게 사고나 화재위험 시 119 신고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전기·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내하고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여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합리면은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 어르신에 디이로움 밥차를 연계했으며 여산면은 혼자 장보기 어려운 대상자와 동행해 마트를 다녀오는 등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웃애(愛)돌봄단은 돌봄 사각지대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주민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29개 읍면동에서 지역복지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400여명의 건강과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리장 부녀회원, 지역주민 등 총 160여명의 봉사자로 구성됐다.

김재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은 "각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써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취약계층이 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 복지의 안전망 구축과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서수면은 8일 청사 내 어울림광장에서 서수면행정복지센터와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원공을 기념하는 복합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품격 높은 행정 · 다양한 문화복지"

군산시 서수면 복합청사 개청식... 행정 · 문화복지 한 곳에

군산시 서수면은 8일 청사 내 어울림광장에서 서수면행정복지센터와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원공을 기념 복합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내 기관장 및 내빈을 비롯한 주민 등 약 350여명이 참석해 서수면 복합청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서수면 복합청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면청사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했으며 대지면적 6,599㎡, 건축연면적 1,872㎡에 지상2층, 지하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 건강증진실, 소회의실, 커뮤니티홀, 프로그램실, 운영사무실이 2층에는 대강당, 전시실, 중회의실, 통신탈이 그리고 기타시설로 어울림광장, 커뮤니티마당, 지하창

고로 이뤄져 있다.

행사는 식전행사로 서수농악대의 길놀이와 서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가타, 난타, 차림리댄스, 고고장구팀의 축하공연에 이어 본행사로 테이프 커팅과 경과보고, 신축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등의 기념식을 진행한 뒤 식후행사로 신축축사 관람과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에서 "서수면에 행정과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청사가 준공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신청사가 보다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문화복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정현을 시장 "익산시민의 날 화합의 장으로"

각계각층 시민들 참여...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별 조정 기간 적극 대응 도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주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는 일상회복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전 직원은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 발대식과 결의대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치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킬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은 각계각층 시민을 포함해 총 350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추진단과 함께 활발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 시장은 이날까지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각 부처별 조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수시로 부처 통합을 살피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북도, 지역 정계각층 등과 공조해 부처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대, '2023년 전북군산 소부장 지원센터 사업' 선정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3년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소부장 지원센터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혁신제품 개발역량 강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해 추진된 대형 국책 사업으로 총 196억 원(44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주관기관인 국립군산대학교에서는 기계공학부 교수진과 고등기술융합연구원이 참여하여 전북군산 신단에 입

주한 기업들의 제조혁신을 위한 기업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분야의 소재·부품의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위한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동 참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하여 각각 전장부품 성능평가 지원, 기업맞춤형인력양성, 스마트제조공정 보급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ONSE대학 유경현 교수(기계공학부)는 "기업수요조사,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되어 있는 전북 군산의 자동차산업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분야로 전환되고 기술 고도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전북 군산 지역의 자동차산업의 업종 고도화를 위한 Open LAB 프로젝트 원포인트 멘토링 전장품 성능평가 혁신제품 사업화 및 제품 고급화 등의 Total solution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국내 뿌리산업특화단지 3년 연속 선정

익산시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주얼리 기업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를 강화해나간다.

특히 2021년부터 3년 연속 선정으로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주얼리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배후 장점을 살려 기업 간 소통 및 연계 강화로 주얼리 산업에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5천200만 원,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을 과제주관기관으로 운영하고 3년간 패션단지, 영등동 귀금속단지, 왕궁 주얼리 제조기업 등 35개사를 대상으로 디지

털 커머스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주얼리 라이브 커머스 및 제품 활용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조성 △고객관리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전략 프로그램 교육 △오프라인 활동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간담회, 포럼 개최를 통한 네트워킹 활동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주얼리 소비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관료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장경호 익산시의원, 등산로 지정 · 관리 조례 제정 나서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 인화, 마동기 익산시 소재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보장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장경호 의원은 8일, 익산시 산악연맹 조영환 회장 권성조 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익산시 등산로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유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등산로 이용자의 증가에 맞춰 익산시 소재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훼손이 심한 일부 등산로에 대해서는 등산객의 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장경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등산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콘텐츠팩토리, 청소년 체험형 영상제작교육 지원

군산시의 콘텐츠창작 · 창작지원기관인 콘텐츠팩토리가 군산 시민영상미디어센터 '샘'과 손을 잡고 청소년 영상제작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주관 '202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특히 '영상'과 '미디어의 우리동네 데이트'라는 주제로 군산의 명소, 맛집, 관광지, 영화 촬영지 등을 탐방하며 영상제작 실습을 진행할 계획으로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콘텐츠 분야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콘텐츠팩토리는 청소년들의 영상제작 실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의장 및 편집 시설 등을 제공,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